교수단상

고요함속에서의 성찰의 계기

이 근 수
〈정경대 교수 회계학〉

바닷가에서 가져보는 삶에 대한 다짐
변화에 대한 긍정적 희망 가질 터

대서양 바닷물이 발밑에까지 철썩이며 밀려오고 골프장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고 조 식당이 많은 곳,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언뜻 저 남쪽 쏠모리다의 마이애미 비치나 카리브해변의 어느 유명한 휴양지를 머리에 떠올릴지 모르겠다. 다시 아곳이 범죄도 없고, 겨울도 없으며, 거기에다 교통난마저 없는 도시라고 말한다면 서울의 지겨운 교통지옥과 밀주었이 멀게 빈만하던 종악한 범죄와 사고의 기억 그리고 여름더위와 겨울추위에 이제는 지쳐버린 사람들이 현반쯤은 동경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도 생각될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윌밍턴시 주변에 인접한 몇개 도시를 모두 합쳐봐야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 작은 해변도시. 그러나 19세기 무역의 중심이었던 '카톤 익스체인지(cotton exchange)'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3백년역사의 한 모퉁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한가운데 70년평의 넓따란 광원위에 학생수 8천명의 노스 캐롤라이나대학 윌밍턴 캠퍼스가 있다. 학교에선 안식년을 얻고 이곳 대학에선 연초부터 대우교수(adjunct professor)로 임명받아 한 해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머물고 있는 곳이다. 확일이라곤 회계학과에서 맡고 있는 일주일 세시간 짜리 단출한 강의 하나. 그리고 열가족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마다 항상 점심을 함께 하는 작은 한국인교회에서 주일마다 한시간씩 가르치는 바이블 클래스가 전부인 자유로운 생활에서 나는 아마도 평생에 가장 고요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편지가 아직도 철없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끝긴대 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가 나의 마음을 열어준 때문일까.

오래전 대학시절 무전여행이랍시고 울산에서 시작하여 속초까지엔가를 더듬어 올라가던 여름방학기간. 울진인가 죽변인가 어딘가에서 바닷가에 면한 송림속에 누워서 들던 쏴바람 소리가 생각난다.

음악소리와 함께 바람결에 실려오는 또다른 목소리를 듣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학문을 해야 해. 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해."

어렇게 지낸 시간이 이느새 1년이 가까와 온다. 이제 곧 다시 보게 될 서울의 정취가 벌써 그리운 모습으로 성큼 다가선다. 이곳에 와서 쓰기 시작한 회계학관계 저술도 이제는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책이 모두 끝나고 이번 학기의 강의도 끝나면 나는 곧장 비행기를 탈 것이다. 동양문 앞 청국장찌개 네거리엔 삼겹살집의 쩍특한 냄새가 벌써 입맛을 돋구어준다. 학교는 그 1년간 을라보게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학교만이 아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곳에서 변화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물은 항상 떠가고 물은 늘 흐르는 것. 깔라일이 말한대로 만약 지나간 것에 대한 추억이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변화에 대한 희망에도 또한 힘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시봉

전재연 학술부 기자

'세계화'와 '벌거벗은 임금님'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은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임금님에게 보냈던 박장대소가 어렴풋한 기억 속에 떠오른다.

그러나 설령 동화로만 이해할 수 있을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새롭다.

올해에는 유난히 우리나라에 불상사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이 얼마전에 '또' 발생했다. 김대통령이 아폐화의에서 들어와 세계화를 추창하면서 모처럼 성국분위기를 잡아가려는 이때에 말이다.

부천 세금횡령사건은 '더어상' 간과할 수 없는 우리사회 내부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음적하다. 내무부는 인천 북구청 사건이 터지자 북구청 일부 직원의 개인적 비리일 뿐 다른 자치단체에는 새무비리가 없다고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혼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세무비리가 전국 각 지역에 만연돼 있을 거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지. 게다가 이번 부천시 사건은 내무부와 자치단체의 자치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자체감사의 한계까지 극명히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세계화 주창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는 생업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한다. 김대통령은 이 세계화를 위한 추진기구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인간성이 존중되고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게 하는 제제와 규칙을 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임금님은 가장 멋진 옷을 입고자 하는 허영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화라는 실로 썼다는. 그리고는 신은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 옷에 감탄하고 의기양양해 하는 것은 아닌가. 신하들의 눈에 분명 임금님은 벌거벗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선뜻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세계화'라는 옷이 어떤 실로 짜여졌고 어떤 무늬이며 얼마나 질긴지 지로 재고 분석하고 파악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란하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세계화를 통하여 우리가 거대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벌거벗고 세계로 나아가려는 우리 임금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라는 소년의 외침이 아닐까. 그 임무를 맡는 것은 언론이어도 좋고 정당이어도 좋고 국민 개개인이어도 좋다.

물론 세계화라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꿈꾸어 볼적도 하다. 그리나 사회는 어설픈 희망에 조롱당하기에는 너무 병폭적 현실의 장이다. 대통령은 세계화로 가기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사회분제도 그렇고 정치문제도 그렇다. 아직 정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12·12든 5·18이든 역사에 맡기자고 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평가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역사적 평가는 그 자료와 근거가 가장 확실하고 충분한 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님의 옷은 사회개혁과 역사에 대한 정정당당함으로 짜여져야 한다. 조금은 투박할지도 모르지만 옷은 튼튼한 것이다. 이 옷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맹주의에서 우리를 견디내게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영화시사회

'나쁜피' 생을 건 모험의 진지함

'나쁜피'는 침울함과 자유로움이 조화된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하는 프랑스 영화다.

색채대비·소리대조로 침울함 조성
치밀한 구성·세련된 예술미 돋보여

침울하다. 그런 침울함은 빛과 소리로 나타난다.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대비되는 색채 사이사이의 흑백화면과, 괴성과 높은 톤의 음악 간간이 흐르는 침묵의 대조가 침울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흑백무성영화'의 슬픔과 애잔함을 연상케도 하는 것이다.

자유롭다. 그런 자유로움은 배경 설정에서 나타난다. 있지도 않은 불치병 STBO가 등장하며 혜리 혜성이 만드는 무대위, 눈동의 이상한 기상 현상은 예측을 불허한다.

침울함과 자유로움이 조화된 영화 '나쁜피'는 이런 장치들로 관객들을 사로 잡았고 많은 영화학도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에겐 '퐁네프의 연인'으로 더 없이 잘 알려진 천재 감독 레오카라 25세에 완성한 영화 '나쁜피'는 감독의 감각이 영화에 깨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뚜렷이 보여 준다.

'퐁네프의 연인들'에서 주인공역을 했던 네니라방, 줄리에뜨 비노쉬가 역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알렉스와 안나 역을 맡고 있다.

흑백화면 속의 하얀백조의 날개짓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백조의 날개짓은 주인공 알렉스의 무엇인가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그 알렉스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건은 시작된다. 그 원한으로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믿고 파리 탈출을 기도한다. 이를 위해 알렉스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다.

알렉스는 '변화를 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며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자친구 리즈마저도 정리하고 마크에게로 간다. 한편 애정없는 성관계시에 발생하는 불치병이 전유럽을 뒤흔든다.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달라,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알렉스와 마크일행은 계획을 마련한다.

알렉스는 마크와 동거하는 안나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지만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마크를 사랑하는 안나. 알렉스가 백신을 훔치고 미국의 갱단조직은 이를 빼앗기 위해 알렉스에게 총을 쏜다. 무상당한 알렉스는 탈출하기 위해 비행장으로 가지만 도착해선 죽어버린다. 예전에 알렉스가 버렸던 여자, 리즈 그리고 사랑했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여자 안나는 알렉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다.

주인공들은 진지하다. 영화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을 걸고 모험을 하고 있다. 리즈는 백신을 훔쳐다 위기에 빠진 알렉스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구한다. 안나는 알렉스가 죽은 후에야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그였음을 깨닫는다. 알렉스의 비참한 죽음까지 설정되는 데도 관객들이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것일까?

안렉스가 죽자 안나는 마크의 무릎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알렉스가 뛰어다니던 것처럼 미친 듯이 활주로를 뛰어다닌다. 관객들은 안나가 뛰는 모습에서 영화가 시작할 때의 백조와 날개짓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나쁜피'는 앞뒤가 꽉 짜여진 너무도 치밀한 구성을 하고 있다. 또 촬영은 다른 곳에서 보기힘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치밀함과 세련된 예술미에서 우리는 프랑스 영화만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학술단신

교육개혁 정책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2월 1일 오후3시, 성균관대 종합강의동 32325호에서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1회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 정책토론회는 김상곤 교수(한신대 경영학과, 민교협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발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국제경쟁력 논리의 비판과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김선홍(성균관대 교육학과) △대학의 자주성 확보와 자율화 방안—박거용(상명여대 영어교육학과) △부족한 교육재정,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동규(충남대 회계학) △교육관계법(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방향—신현석(계명대 법학과) 등을 나루게 된다.〈문의 888—3683〉

소설 '토지'와 한국근세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29일 오후 7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월례토론회를 갖는다.

'소설 토지와 한국근세사'라는 주제의 이 토론회는 학문의 전문화 경향으로 나타난 연구자들간의 서로의 학문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의 극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문의 888—3683〉

'자본론'완간 기념강연

고려대 사회과학연구회는 '자본론'완간 100주년 기념으로 12월 2, 3일 고려대에서 강연회를 연다.

'자본과 현대 자본주의'란 주제의 제1강연에서는 자본의 성립시를 검토하고,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제2강연에서는 알튀세르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역설'에 대한 비판을 다룰 예정이다.

司試·行試·外試·立法·7級
12·1월 基本 理論 특강 안내
효과적인 수험생활에서 시간 절약은 주마가편의 효과를 얻게 해 줍니다.
노량진,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이곳에, 서울대학교 주변 고시촌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과 목	담 당	교 재
憲 法	김 ○ ○ 敎授	〈객관식 헌법〉 신영사
民 法	류 창 재 변호사	〈민법 I. II. III. IV〉 저자직강
刑 法	이 관 ○ 敎授	이재상 저 〈형법총·각론〉
經 濟 學	洪 鍾 仁 敎授	어떤 교재로도 수강 가능
文 化 史	姜 正 植 敎授	〈세계문화사〉 저자직강
韓 國 史	姜 正 植 敎授	〈고시한국사〉 저자직강
情報體系論	金 永 喆 博士	〈정보체제론〉 저자직강
考試英語	朴 泰 鎬 敎授	〈경문고시영어〉 저자직강
行 政 法	徐 廷 ○ 博士	〈객관식 행정법〉 경세원
行 政 學	金 永 喆 博士	〈행정학 강의〉 저자직강
行 政 學	權 ○ ○ 敎授	〈행 정 학〉 고시학회
獨 逸 語	金 石 道 敎授	〈현대독일어〉 저자직강
地方行政	고 상 ○ 敎授	〈지 방 행 정〉 저자직강
國民倫理	노 재 명 敎授	〈상동국민윤리〉 저자직강

현대고시학원
노량진역 건너편 점진학원 뒤 대양학원 1층
문의전화 826-0071~5

CHUNG MOON LANGUAGE INSTITUTE CM
언어로! 영·일 중·불·독 제계로!
Everybody's talking about …

종로2가 종로서적뒤 TEL. 738-5151
청문외국어학원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볼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의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 139기 수강생 모집
●개 강 : 1995. 1. 4
●강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제도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외국어 교육 1 번지!
YBM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 어학 학원
英語·日語·中国語
● 이카데미 TOEFL
● 시사영어사 종합 TOEFL
● TOEIC·TOEIC L.C
● AFKN 청취
● TIME
● TOEFL L.C.
● VOCABULARY
● 원국인 영어회화
● 스크린 영어회화
● 패러런 영어강좌
● 영작은 연구
● 영어순배
● 영어실력 기초
● 성문종합영어
● 일본어 문법·독해
● 대학원·취업영어
● 일본어 능력시험 대비
● 일본인 일어회화
● 중국어 문법·독해
● 주말 특별 과정
ECC 영어 회화 과정
집원제·Level Test 실시
전강사 Native Speakers
본 학원에서 개발한 교재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수강
전화 : 276-0509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26년의 信賴와 權威
정보통신 정보처리
개 강 12월 5일(월) 1월 3일(화)
■ 겨울방학 大특강
· 정보통신설비기사 필기 (10주) -12월 19일(월)~2월 28일(화)
· 정보처리기사 필기 (6주) -12월 19일(월)~1월 27일(금)
· 사무정보기기(OA) 응용기사 2급필기 (5주) -12월 19일(월)~1월 20일(금)
◉ 지정좌석제 선착순 예약 접수중
◉ 전, 출제위원 교수직강
■ 취업 및 전문과정
· 정보처리속성과정 ……(5개월)
· 사무자동화(OA)속성과정 ……(2개월)
· 사무자동화(OA)재벽반 ……(2개월)
· 여성OA취업반 ……(4개월)
· WINDOWS & EXCEL ……(1개월)
· C 언어과정 ……(2개월)
· AUTO-CAD과정 ……(4개월)
본 원 의 특 징
· 공무원 국영기업체, PC자격시험 대비 교육기관
· 노동부 지정 1년제, 2년제 전문 교육기관
· 본원 재학생 병역면기 혜택부여, 통학권 발급
· 1인 1대의 586(펜티엄) 시스템 교육및 자유실습, 자습실개방
본원 : 735-0211~5 종로2가(종각역) YMCA 옆
상계 : 952-2411~5 미도파 상계점 건너편 현대증권 B/D
선배가 추천하는 최고의 학원
서울정보처리학원 1989